

세계일보

코로나19에 ASF까지... “판문점 견학 재개 연기 불가피”

경기도 북부 軍부대서 코로나19 집단감염
강원도 화천 ASF 재발에 경기 파주 ‘화들짝’
“판문점 견학 재개 시 위험... 재연기 필요”

입력 2020-10-11 11:55:01, 수정 2020-10-11 12:03:01



최근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회담이 열리는 장소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과의 접경지대에서 가까운 경기도 북부의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역시 최전방과 근접한 강원도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발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다. 당장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 재개가 또다시 연기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ASF 전파 차단을 위해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경기도 북부 軍부대서 코로나19 집단감염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나왔다. 전날(10일) 해당 부대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부대원 300여명 전원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5명 이외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 부대 밖에 있는 전역 전 휴가자 35명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35명에 대해선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양주 군부대 집단감염에 앞서 포천의 육군 부대에서도 훨씬 규모가 크고 더 심각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초기에 감염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부대 소속 장병 전원을 인근 부대로 분산시켜 자가격리에 돌입하도록 하는 한편 포천 일대에 주둔한 전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외출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 부근에서 장병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강원도 화천 ASF 재발에 경기 파주 '화들짝'

코로나19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양돈 농가들은 지난 9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약 1년 만에 재발했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애를 태우고 있다.

ASF 재발이 확인된 곳은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의 어미돼지가 출하된 철원군 소재 도축장을 긴급 폐쇄하고 차량 출입 통제는 물론 도축장 내외부에 대한 긴급 소독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이날까지 접경지역과 인접 지역 8개 시군의 모든 양돈농가 121곳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가장 긴장하는 곳은 다름아닌 경기도 파주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17일 국내에서 처음 ASF가 발생한 곳이다. ASF 발생 이후 파주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63개 농가 6만1790마리의 돼지를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한 바 있다.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 관계자는 “모든 바이러스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은 물론 축사 안팎을 하루 2~3차례 소독하면서 물샐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판문점 견학 재개는 위험...재연기 불가피”

파주시는 판문점이 있는 곳이다.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해 파주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직후 중단됐다. 그 뒤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판문점은 아예 외부인 방문 자체가 뜸해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안간힘을 쓰면서 판문점 견학 재개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장하는 유엔군사령부 역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곧 견학 재개 일정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얼마 전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차례로 판문점을 방문, 견학 재개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운 바 있다.

하지만 판문점과 가까운 최전방 육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애초 견학 프로그램 중단의 원인이었던 ASF마저 접경지대 인근에서 재발하며 ‘지금 당장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건 무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양돈농가 관계자 말처럼 모든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 군과 유엔사 안팎에선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